

## 1. 회의 개요

가. 주최: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)

나. 일시: 2010년 5월 4일 (화) 07:00~09:00

다. 장소: 서울, 조선히텔 2층 코스모스-바이올렛룸

## 2. 주 제: “서울 G20 정상회의 전략과 준비현황”

## 3. 프로그램

- 사회: 양수길 KOPEC 회장

o 07:00 - 07:30 조찬환담

o 07:30 - 07:35 개회

o 07:35 - 08:00 발제

-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단장

o 08:00 - 08:55 질의응답 및 토론

o 08:55 - 09:00 폐회

## 4. 회의 주요 내용

□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, G20 기획조정단장을 모시고 진행상황을 들어보는 한편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함.

□ G20의 기본적인 의제 세 가지로는 ①경기회복 지원과 출구전략, ②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, ③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 있다. 추가적으로, 금융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지속적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 등에 관한 ‘금융규제 개혁’논의가 있을 것이다.

□ 또한 새롭게 다루어질 의제로는 우선, 금융안전망과 관련하여 외화유동성 공급 매

카니즘의 제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 이는 특히 신흥국의 자본이동 변동을 완화하여 Self-Insurance 유인을 줄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균형을 다시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. 각 국의 입장이 다른 만큼, 매우 주목받을 이슈로 예상된다. 이번 금융위기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내부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회수하면서 겪게 되었으며,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, 개도국에 어떠한 방어막이 없다면 또 다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, IMF나 World Bank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.

□ 다음으로 세계 경제 개발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자는 내용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 여기서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이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하며, 또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및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들어 개발 의제를 국제사회 논의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. 특히, G20 국가들이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,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나 인적자원 개발은 어떻게 할지, 글로벌 재균형에 있어 전 세계 총 수요가 어디서 올지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.

□ 한국은 G2가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관리 기구가 아니라, 위기 이후에도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. 또한 G20은 정치적 모임인 만큼, 한국이 개도국만을 대변한다면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 G20 밖의 개도국을 대변해주는 일이 오히려 한국이 다른 G20회원국과 협력하는 기회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. 그리고 개발은 단지 개도국 혹은 한국에만 해당되는 의제가 아니라, 각국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, 전 세계가 모두 공감하는 의제이다. 한국은 각 의제에 한국의 입장 전달을 넘어 한국의 경험을 통한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.